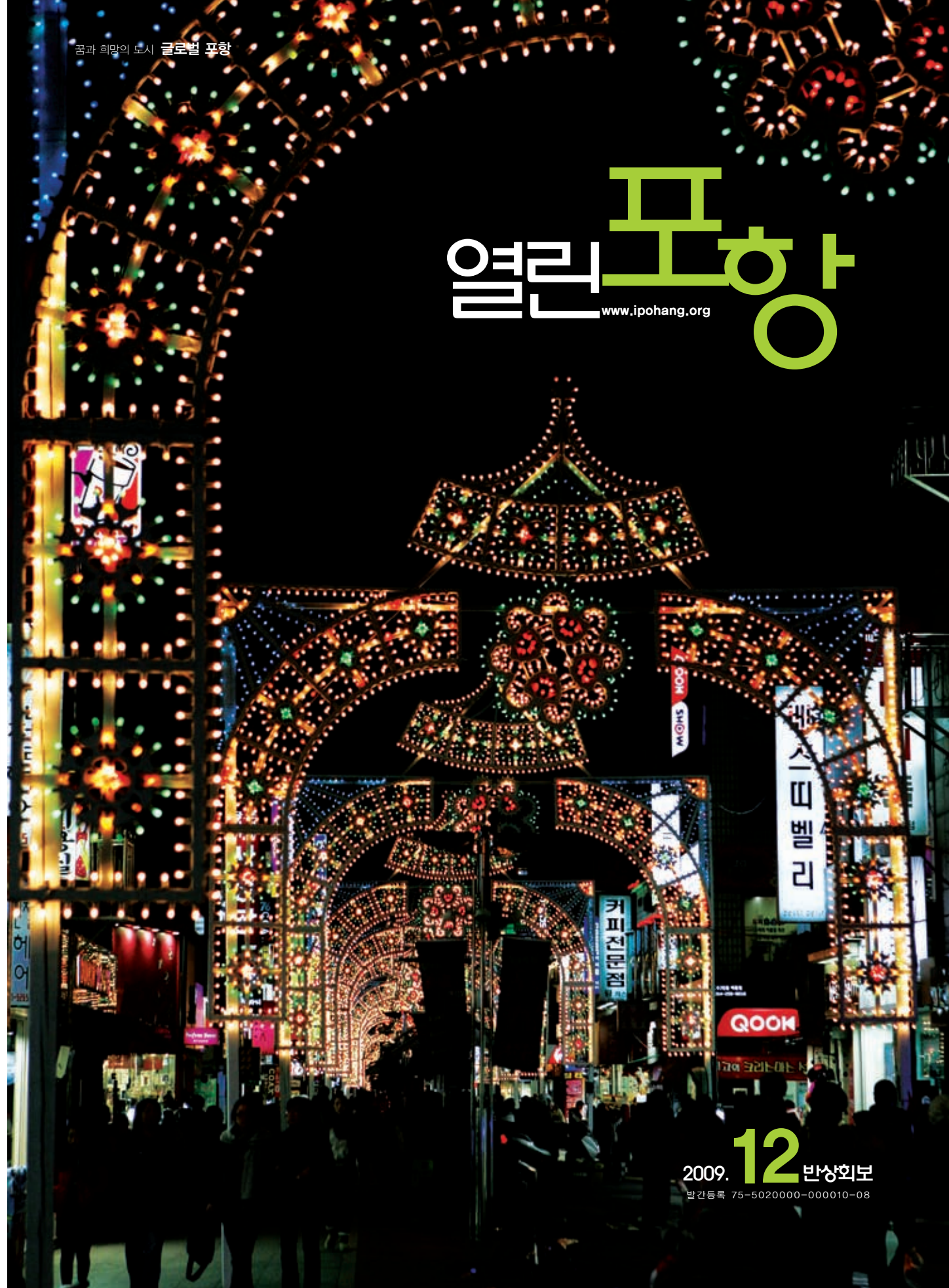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Season's Greetings &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열린 포항  
www.ipohang.org





# 소설 小雪

저녁바람이 맑고 가는 소리를 물고  
눈이 내리곤 했다  
사원은 낡고 조락해서  
더 이상 아무도 머물지 못하고 떠났지만  
가만히 쇠골 속으로 흘러드는 소리를 듣는다  
문이 많은 집이었지만  
늘 문 밖에 서 있었다 나는  
수없이 열리지만 열리지 않는 문 밖에서  
사랑의 시간들과 경건에 이르는 묵상의 시간들을  
가멸없이 사라지는 바람들을  
하얗게 날리는 눈발을 휘몰아 가버리는  
바람들을 바라보았다  
이명의 귀속으로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저무는 이 언덕 위에서  
눈 맞으며  
또 한 겨울을 보내야한다

김만수 시인

포항생. 1987년 「실전문학」 등단. 포항문인협회장. 푸른시 동인. 장시 「송정리의 봄」, 시집 「소리내기」  
「햇빛은 굴절되어도 따뜻하다」, 「오래 휘어진 기억」, 「종이눈썹」, 「산내통신」, 대동고등학교 교감

# 열린 포항

www.ipohang.org



06



08



10



14



18

## 2009 12 CONTENTS

- 04 기획 | 2010년 포항 시정 방향
- 06 특집 | 해맞이 가자! 호미곶 가자!
- 10 테마기행 | 신나는 겨울방학 기행
- 12 우리고장전래동화 | ⑩ 마고할멈이 버린 공깃돌
- 14 문화마당 | 공연, 전시, 행사, 기타
- 16 포커스 |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및 관람안내
- 18 포커스 | 포항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소개
- 20 시정브리핑 | 읍면동 쌀소비운동본부 구성해 쌀 소비촉진 나선다
- 23 의정브리핑 |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의 펼쳐
- 24 포항레이더 | 연말연시 읍주운전 특별단속
- 26 I♥POHANG |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나세요
- 27 지상갤러리 | 권중민 · 孤(외로움)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이명자
- 담당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Tel : 054 · 270 · 2334
- 발행일 : 2009년 12월 25일 (통권 77호)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육거리 중앙로를 환하게 밝힌  
루미나리에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 • 정미향



# 2010년 시정 방향 키워드는 민생안정과 녹색성장



**2009** 년은 시민들에게 힘든 한해였다. 글로벌 경제 한파에다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엄습했다. 그래서 올 한해의 시정화두는 경제위기와 신종 플루 극복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우리가 위기에 강한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의 회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감안, 2010년도 시정방향도 올해와 같이 '친서민'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도시 기반조성과 녹색성장에 두기로 했다. 포항시의 2010년도 시정방향을 알아본다.

먼저 포항시는 2010년 시정방향을 환동해경제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기반조성과 함께 국제교류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포항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두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일본과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선사 등을 추가로 유치하는 등 영일만항에 대한 포트세일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테크노파크 2단지, 포항블루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들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고, 광역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영일만항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교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존의 일본, 중국, 러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투자유치, 자원 확보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하에 '산업은 저탄소, 생활은 클린'이라는 시정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총괄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 산업분야와 IT융합, 신소재 나노융합, 로봇융용 등 첨단융합 산업분야는 물론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구축하여 이곳을 세계적인 수소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고, 국내 유일의 포스코 연료전지공장과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일원에 수소연료전지 시범타운을 조성하는 등 포항을 녹색성장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음은 '친서민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강화하고,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지역 쌀 팔아주기, 쌀 막걸리 마시기 등 쌀 소비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음은 하이터치(High-Touch) 문화 관광 레포트 허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천혜의 절경과 빼어난 해안선을 가진 지역 특성을 살려, 기존 등산로를 시가지와 해안으로 연결하여 영일만을 따라 완만한 동선으로 조망할 수 있는 '포항 올레길'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과 연계한 '문화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이 높은 문화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마케팅 강화와 함께 안정적 자치시정에 둔다는 것이다. 도시브랜드 파워가 경쟁력인 시대에 서울 등 대도시에 역동적인 포항의 이미지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영일만항 홍보에 주력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 유력언론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계획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과 부문별 세부실천계획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들에게 축제와 화합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금년보다 9.7% 증가한 1조 326억 원(일반회계 8,549억, 특별회계 1,777억)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① 영일만항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해외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 2010년 해맞이 가자! 호미곶으로 가자!

●●● 2000년 새천년을 맞는 해맞이 국가행사로 선정된 이후 12회째를 맞는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10' 이 오는 31일 오후부터 새해 경인년 첫날까지 이틀간 호미곶면(구 대보면) 호미곶해맞이광장에서 '호미곶! 한민족의 희망을 품다' 를 주제로 송구영신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로 성대하게 펼쳐진다 ●●●

**2010** 년 경인년은 한반도의 모습을 닮은 '호랑이해' 로 여는 해보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계획이다. 특히 2010년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G-20 레터링 플래시 몹' 행사와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10,000명 떡국 만들기 퍼포먼스', 포항을 세계에 알리는 '중국 산둥성 문화교류행사', 불과 빛의 도시를 형상화한 '포항뮤지컬불꽃쇼' 등 대한민국 대표 해맞이 고장으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축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메인 행사 소개

- 관광객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플래시 몹(G20 성공기원)
  - 관광객 2010명 참가 G-20대형문자(100m×20m) Lettering flash mob
  - G-20국가 국기를 이용 세계평화를 형상화한 음악과 율동
- 중국 산둥성 문화교류
  - 일출을 통한 국제교류확대, 중국 산둥성 TV 20분 특집방송
  - 양력 및 음력 새해 첫날 상호 교류 이원적 협력 방송 등
- 10,000명 분 떡국 만들기
  - 호미곶 해맞이 상징아이템으로 관광객 떡국 제공 및 쌀소비 이벤트
  - 음식 연구가 지휘 하에 쌀 1톤을 비롯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
- 호미곶 전국 연날리기 대회
  - 전문가 연날리기 시범(대형연, 꼬리연 등 20기 이상)
  - 꼬리연 싸움과 창작연 높이날리기 대회, 송구영신 퍼포먼스 등
- 포항 뮤지컬 불꽃쇼
  - 연화 2010발로 10분간에 걸쳐 불과 빛의 도시 포항 형상화

### 부대 행사 내용

- 호미곶 빌리지
  - 일출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추위방지 및 재미·즐거움을 주는 마을
  - 영화관, 사진교육, 게임, 무료운세, 무료인터넷 등
- 호미곶 출사대회
  - 최근 일반화된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 Camera) 교실운영
  - 국내외 카메라·인화사 홍보(가족동반 시 기념사진 및 무료 인화)
  -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일출사진 콘테스트 개최
-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망등 달기
  - 새해의 가정, 개인의 소망을 등으로 제작하여 전시
- 디지털 소망바다
  -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빛 퍼포먼스
- 먹거리 장터 운영
  - 저렴한 가격으로 해맞이객 편의제공
- 과메기 10,000마리 홍보탑 설치
  - 규모 8.7m, 500두름 10,000마리 이용



1 울해도 호미곶해맞이광장에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2010」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2 해맞이 축전에서는 지역농산물 및 쌀소비촉진의 일환으로 10,000명 분 떡국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나눠준다

3 과메기 10,000마리로 만들어진 과메기 홍보탑







4



5



6

4 G-20 정상회의를 기원하며 관광객 2010명이 참가하는 'G-20' 대형문자 레터링 플래시 몹이 진행된다

행사 프로그램 일정

식전행사	14:00~	· 전국 연날리기 대회 · 행사안내 · 홍보영상
아듀2009 1부(전야행사)	20:00~	· 희망의 리퀘스트(현악공연/소망메시지) · 포항 '文化共感' (국악/전통무용/타악) · 포항 프린지(지역 가요제 수상자 퍼레이드) · 주제공연1 '프론티어' (종합 멀티공연-경인년 역사/가야금/비보이) · 주제공연2 '단체 포퍼먼스' (단체 조명, 카드, 깃발-공연단/일반 인등)
호미곶의 정기 2부(자정행사)	23:55~	· 포항시 10대 뉴스 영상 · 카운트 다운/포항 뮤지컬 불꽃쇼 · 중국산동성 문화교류 협정식 · VIP 신년 메시지/기관장 인사 · 새해맞이 축하공연 · 영화 상영
한민족의 평화 3부(해맞이 행사)	06:40~	· 대북 공연/연날리기 · 새시대의 환희(뮤지컬 하이라이트) · 희망의 찬가(팝페라) · 새해인사 · 해맞이
희망의 나라로 4부(특별행사)	07:55~	· 10,000명 떡국 만들기 · G20 성공기원 플래시 몹 (Flash Mob)

호미곶 해맞이 광장의 볼거리

- **해맞이 광장**  
호미곶 광장은 전국 해맞이 행사장 중 최대 규모로 가로 100m 세로 400m가 넘는 1만6천여 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세로로 길쭉한 광장은 바다를 향한 활주로 형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가 쪽은 상생의 손 중 오른쪽 손이, 반대편에는 새천년기념관17면 참조이 올해 준공되었다. 바다 쪽에서 조망 시 오른쪽에 등대박물관과 메인무대가 있고 왼쪽에 연오랑세오녀상, 풍력발전기가 위치하고 있다. 광장의 중앙부근에 새천년 영원의 불성화대와 상생의 손 왼손이 위치하고 있다.
- **상생의 손**  
지난 2000년 해맞이 국가행사 시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의 캐치프레이즈 “새 천년의 꿈, 두 손을 잡으면 현실이 됩니다”의 두 손 역할을 담당한 호미곶 대표 조형물이다. 화합과 상생으로 새천년을 열어가자는 의미로 오른손 높이 8m, 왼손 6m로 브론즈와 화강석으로 지난 1999년 6월 착공하여 12월 완공됐다.
- **영원의 불 성화대**  
지난 2000년 대한민국의 새천년 첫 햇빛을 체화한 역사적인 성화대이다. 성화대는 15m×20m 규모로 태안반도 20세기 마지막 불씨와 남태평양 피지섬 지구의 불씨, 독도 조문해의 불씨가 합해져 함께 영구 보존되고 있다.
- **연오랑세오녀상**  
연오랑세오녀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로 일월승배의 포항문화의 주류 사상이다. 호미곶 해맞이공원에 높이8m, 너비15m의 배경에 3m높이의 연오랑세오녀가 서로 마주보는 형상으로 2000년 6월 제작됐다.
- **호랑이 및 호랑이군상**  
호랑이 및 호랑이군상은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지난 2008년 12월 제작되었다. 포항의 철강 산업을 상징하는 높이8m의 스테인리스 대형 호랑이상과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가로10m의 60마리 군상 조형물로 제작되었으며, 대륙을 향하여 포효하는 기개를 표현하고 있다.

- 5 상생의 손 중 해안가에 자리한 오른쪽 손
- 6 포항문화의 주류사상인 일월승배 사상의 주인공 연오랑세오녀상
- 7 철강산업의 상징 스테인리스와 시승격60주년을 기념하는 60마리의 호랑이 군상으로 표현된 호랑이 군상 조형물



7





● 테마기행 ● 신나는 겨울방학기행

# 신나고 보람된 겨울방학 보내기- 우리 고장의 문화공간을 찾아보자

## 영일민속박물관

홍해읍 성내리에 위치한 영일민속박물관은 향토풍습 및 민속유물을 영구 보존하고자 지난 1835년에 건립된 제남헌을 수리하여 1983년 10월 29일 개관했다. 1987년 6월 정부로부터 국내최초로 민속박물관으로 지정받았다. 개관은 매주 화~일요일 09:00~17:00며 생활용구류, 농어업기계류, 고서적류, 토기류, 의관류 등 총 4,604점을 소장하고 있다. [문의: 270-5811]

## 국립등대박물관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해양안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해양사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건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전문박물관으로 호미곶해맞이광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새천년기념관(17면 참조)이 있다. 개관은 11~2월에는 10:00~16:00. 항로표지용품 및 해양관련 자료 320종 3,000점(전시 500점)을 소장하고 있다. [문의: 284-4857]

## 덕동문화마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덕동마을은 조선의 대유학자인 회재(晦齋) 이언적의 동생 용재(聳齋) 이언팔의 4대손인 이강이 경주 양동마을에서 50리 떨어진 이곳에 거처를 정하고 360여 년간 대를 이어 살면서 여강 이씨 집성촌이 됐다. 특히 천혜의 자연조건과 독특한 문화를 높이 평가 받아 1992년 문화마을로, 2001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받았다. 그리고 제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문의: 기북면사무소 243-7006]

## 대전3·1의거기념관

한마을에 14인의 3·1의사가 난 곳은 전국에도 유래가 없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3·1의거기념관은 14인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그들의 유품을 후손들에게 보전하기 위해 기념관을 건립했다. 개관은 매주 화~일요일 10:00~17:00 [문의: 262-0513]

## 가사천지구 삼굿마을

가사천지구 삼굿마을은 포항의 청정오지인 죽장면 입암리에서 매현리까지 이어지는 금호강 상류 가사천 일대의 도시민 농촌체험지구다. 맑고 풍부한 물과 계곡암반, 각종 토종산물이 풍부하여 후덕한 산골인심을 간직하고 있다. 죽장서원과 입암팔경, 노계시비공원, 경상북도수목원, 하옥계곡 등과 연계하여 개인과 단체의 문화탐방, 생태체험, 영농체험, 전통생활문화체험, 농가민박도 할 수 있다. [문의: 270-3905]

## 환호해맞이공원

환호동에 위치한 환호해맞이 공원은 추억과 낭만의 테마공원, 도심 속의 레저 공간으로 바다로 탁 트인 공원에 올라가면 영일만이 한눈에 보인다. 최근 개관한 포항시립미술관(18면 참조)이 환호해맞이 공원 내에 있다. [문의: 270-5561~7]

## 포항시립어린이도서관

포은도서관에 자리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동화책과 위인전을 비롯하여 과학, 예술, 역사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도서 1만5,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20여대의 컴퓨터를 구비하여 멀티동화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문의: 270-5670]

## 포스코역사관

창업전사, 창업기, 포항건설기, 광양건설기, 대역사 완성 이후, 테마존, 창의관, 청암관, 세계속의 테마존, 창의관, 청암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 전시장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용광로인 삼화고로의 실물을 볼 수 있다. 관람은 평일~토요일 09:00~18:00 [문의: 220-7720~1]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도동에 자리한 문화예술회관은 동해안 문화예술의 산실로 수준 높은 공연유치 및 다양한 전시회 등으로 시민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고 있다. [문의: 272-3032]



2



3

1 호미곶 광장 인근에 위치한 국립등대전문박물관

2 덕동문화마을의 덕연관

3 14인의 3·1의사의 희생정신을 간직한 대전 3·1의거 기념관

4 포스코역사관



4



# “아하

하하” 입을 활짝 벌리며 마고할머니는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도무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온 몸을 뒤틀며 한껏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누군가가 살며시 회랑으로 들어왔다. 깜짝 놀란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상제님이 방긋이 웃으며 서 있었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공깃돌을 얼른 뒤춤에 감추며 허리를 숙였다.

“예까지 어인 일로 ……”

“하품소리에 옥경 바다가 꺼질 것 같아서 왔어요.”

상제님은 꺄꺄 웃으며 마고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심해서 그만 ……”

할머니는 하얀 잇몸을 드러내며 멋쩍게 웃었다.

“그동안 선녀로 하늘과 땅을 오가며 고생을 많이 해쥬소. 그러니 이제는 꼭 쉬어요.”

“예, 감사합니다.”

상제님은 돌아나가다가 싱긋 웃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 뒤춤에 감춘 건 뭐요?”

“아,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도 한 번 봅시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상제님의 손바닥 위에 공깃돌을 얹어 놓았다.

상제님은 또 꺄꺄 웃으며 공깃돌을 자그락거리다가 무릎을 쳤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할머니!” 상제님은 성큼성큼 옥경 정원으로 앞서 갔다. 옥경 가운데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 상제님은 바로 그 연못 옆에 앉더니

“자, 들여다봐요.”

할머니가 연못을 들여다보자, 연못에는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환하게 나타났다.

“이걸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라고요?”

“아니야. 저쪽 구석을 봐요. 강사리 바닷가 말이요.”

할머니는 눈을 닦고 다시 보았다. 아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민망하여 머뭇거리자 상제님이 말을 이었다.

“저기 가서 아이들과 놀다 와요. 그럼 심심하던 게 짝 사라질 거요.”

“그래도 그렇지. 어찌 아이들하고 공깃돌 놀이를 ……”

“아이들에게 지지나 말아요.” 상제님은 마고할머니 등을 툭툭 치고는 정원을 나가버렸다.

“지지나 말라고요? 나를 저 아이들과 비교하시다니 이 옥경에서도 공깃돌은 내가 최고라고요.”

마고할머니는 상제님이 던진 말에 슬그머니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단단히 준비하여 곧바로 강사리로 내려갔다.

“애, 애들아! 나도 끼워 줘.”

다짜고짜 아이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에이참! 할머니 우리 지금 한창 재미있게 노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귀찮다는 듯이 마고 할머니를 밀어냈다. 자존심이 잔뜩 상한 할머니는 가지고 온 자루를 열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색색가지의 과일과 떡이 가득했다.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만약에 말이다. 나를 이기면 이거 다 주마.”

아이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강금이를 등을 떠밀었다.

“니가 최고 잘 하나?” 강금이는 고개만 까닥했다.

마고할머니는 강금이와 마주하고 앉

았다.

“할머니가 먼저 하세요.”

강금이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공깃돌을 할머니 앞으로 밀었다. 긴장을 좀 풀고 난 뒤에 하고 싶었다. 이를 눈치 채지 못한 할머니는 공깃돌을 한 데 모아서 움켜쥐었다.

“딱 세 판만 하는 거다. 알았지?”

강금이는 또 고개만 까닥했다.

마고할머니의 숨씨는 놀라웠다. 하나 잡기, 두 개 잡기, 세 개 잡기, 네 개 잡기,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돌 다섯을 손등에 올렸다.

‘에이씨.’ 아이들은 실망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맛있는 거 먹기는 글렀다는 생각뿐이었다. 할머니가 돌을 높이 던져 올렸다. 그때였다.

“강금아!”

물질을 나서며 강금이가 엄마가 강금이를 불렀다.

“예! 엄마. 다녀오세요.”

강금이가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다. 아이들도 소리 나는 쪽을 보려고 일어섰다. 그 바람에 할머니의 자세가 기우뚱거리며 그만 돌을 놓치고 말았다.

“야! 이걸 순전히 너희들 때문이야. 다시 해야 돼.”

아이들은 바다에 흩어진 돌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강금아, 이번 네 차례야.”

신이 난 아이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강금이가 손놀림은 제비 날개처럼 날렵했다. 단숨에 한판을 끝냈다.

화가 난 할머니가 두 번째 판을 시작했다. 넘적한 손을 뒤집으며 돌을 받아나갔다. 이번에 이겨야 동점이 되었다. 손등에 돌을 올리고 막 돌을 던져 올리는데

“빠꼭, 빠꾸욱!”

딸꾹질하듯이 빠꾸기가 소리치며 날았다. 할머니는 궁둥이를 들썩이며 소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 사이에 돌들은 바닥으로 주르륵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공깃돌을 거두어 갔다. 강금이가 또 이겼다. 물론 할머니의 자루에 들었던 맛있는 음식은 아이들 차지가 되었다.

“애들아! 한 번 물러 줘. 한 번만 더 ……”

마고 할머니가 한 번만 다시 하자고 졸랐지만 아이들은 벌써 저만큼 음식 자루를 들고 달아나 버렸다.

마고 할머니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였다. 불뚝불뚝 화가 치밀었다.

“에이 참!”

움켜쥐고 있던 공깃돌이 패대기쳐 버리고는 투덜투덜 옥경으로 올라갔다.

# 마고할머니가 버린 공깃돌

●●● 강사 1,2리에는 고인돌들이 전해져 오는데, 마고할머니가 패대기쳐 버린 공깃돌(고인돌)이라고도 한다 ●●●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열다

## [행사]

### »» 책나눔 사랑나눔 - 영암도서관 크리스마스 행사

- 일 시 : 12월 24일~25일
- 장 소 : 영암도서관 1층 로비
- 내 용 : 2005년 도서로 1인 2책 교환 가능

### »» 인형극 「북풍마녀와 루돌프 사슴」 - 영암도서관 크리스마스 행사

- 일 시 : 12월 25일 14:00, 16:00(2회 공연)
- 장 소 : 영암도서관 유아방
- 대 상 : 초등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 (선착순 30명)
- 극 단 : 인형극단 <별>

### »» 「반크 역사 바로 찾기」 특별강연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2월 28일~29일 10:30~12:00
- 장 소 : 포은도서관 어울마루문화관
- 강 사 : 이광수 「반크 역사 바로 찾기」 시리즈 저자
- 대 상 : 중학생 이상 80명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12월 16일부터 포은도서관 홈페이지
- 참고도서  
「반크 역사 바로 찾기」 시리즈/ 출판사 키네마인  
1권-백두산 괴물을 찾아라  
2권-동북공정의 비밀을 찾아라  
3권-요코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라  
4권-독도와 동해의 주인을 찾아라

### »» 포항시립도서관 겨울독서교실

- 내 용 : 다양한 독서활동
- 일 시

	포은도서관	영암도서관	도서정보센터	오천도서관	동해석곡도서관
기간	2010년 1월11일(월)~15일(금)		2010년 1월 19일(화)~ 23일(토)	2010년 1월 18일(월) 22일(금)	
장소	해당도서관				
대상	초등4학년		초등4~5학년		
인원	30명	20명	30명	25명	20명

\* 접수방법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 »» 찾아가는 음악회

- 일 시 : 2010년 1월 19일 19:30 (예정)
- 장 소 : 선린애육원
- 출 연 : 포항시립합창단 (지휘/공기태)

### »» 시립교향악단 2010 신년음악회

- 일 시 : 2010년 1월 21일 19: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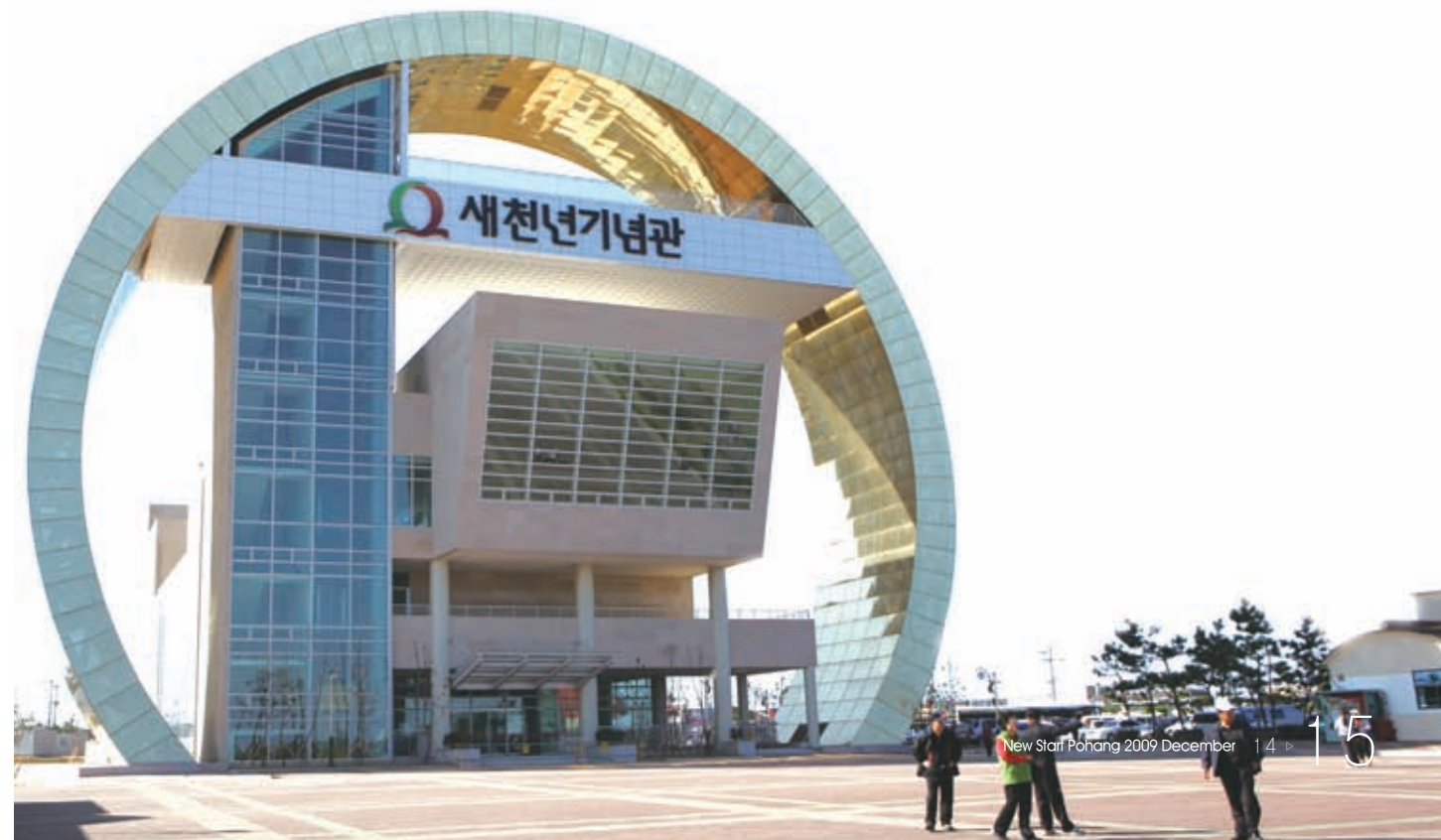
### »»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갈라쇼

- 일 시 : 2010년 1월 23일 15:00
-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공연장
- 극 단 : 퍼니플레이
- 대 상 : 초등 5학년 이상, 중·고등학생 및 일반 / 600명
- 접수방법 : 2010년 1월 8일부터 포은도서관 홈페이지

‘영일만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천년 포항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새천년기념관이 4년여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8일 개관한다. 특히 새천년기념관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 광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연간 300여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포항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기념관은 연면적 5,10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빛의 도시 포항 속으로 전시실, 신비로운 바다화석 박물관, 공예공방 체험실, 영상세미나실, 시청각실,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새천년기념관은 주말 관광객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개관하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기념관 1층 전시실은 무료이며, 2층 화석박물관은 유료 입장이나 개관 당일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270-2373]





#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시민이 감동하는 /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

#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 포항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포항시립미술관이 12월 22일 '포항시립미술관, 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도 시의원, 도내 시장 군수, 관내 기관

단체장, 사회단체, 문화예술계 인사,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환호해맞이공원 내에 자리 잡은 포항시립미술관은 총사업비 135억 원에 5,241㎡(지하1층, 지상2층, 별관2동) 규모로 지난 2006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약 3년여의 공사를 거쳐 개관하게 됐다. 다만, 수장고는 내년 3월 말에 준공된다.

포항미술관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라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5개의 전시장(약 1200㎡)과 수장고, 도서자료실,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지로 건립한 경북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서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관람은 하절기(6월~9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개관전시회 기간에는 오전 10부터 오후 8시(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휴관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당일에 한한다.

개관기념전은 '신철기시대의 대장장이'를 주제로 4개의 전시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포항은 과학기술이 접목된 첨단신소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개관기념전은 미래 산업과 문화예술이 결합하여 보다 인간적인 사회와 환경을 추구할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주도적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기념전은 개관일인 12월 22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83일간 열린다. 제1전시 '영희와 철수', 제2전시 '사이버네틱스-신철기시대의 대장장이', 제3전시 '포항미술 2009', 제4전시 '초현 장두건 화백 특별전'으로 구성되는데, 지역 및 전국 작가 약 200인이 참여하여, 약 220점의 작품이 5개 전시실과 로비 등에 전시된다.

특히 이번 기념전은 개관의 의의와 철학을 제시하고 미술관의 역량과 역할을 우리나라 미술계에 각인시키는 한편, 시승격 60년을 기념하고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새로운 60년을 전망하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 새로운 비전의 문화예술도시를 여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관기념전 행사내용 18, 19페이지]



2

1 원호해맞이공원 내에 자리한 POMA의 실내 Pohang Museum of Steel Art 포항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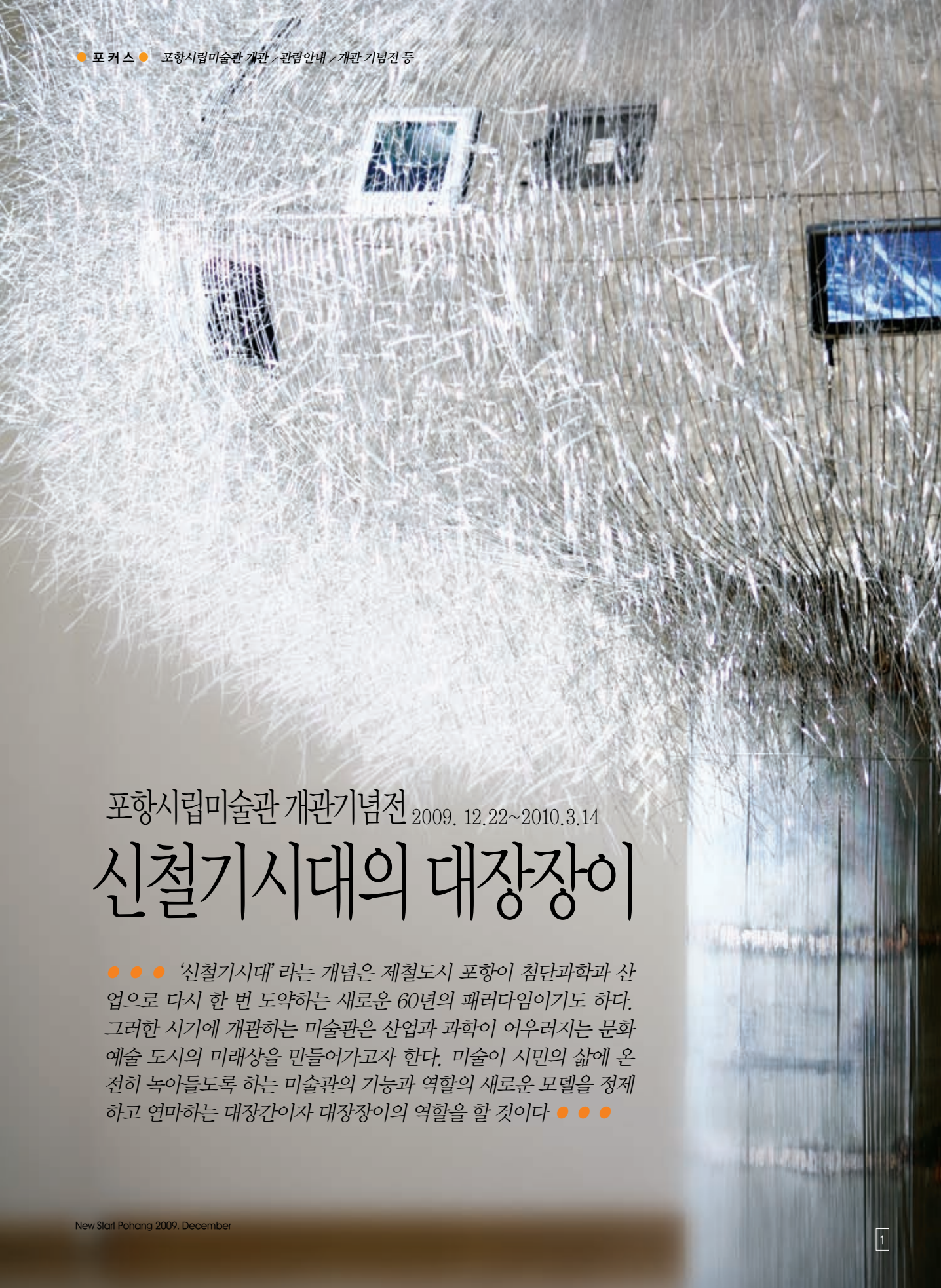
2 POMA의 실내

3 POMA의 실내를 들여다보면 이기자기한 조형미가 돋보인다



3





# 포항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2009. 12.22~2010.3.14

## 신철기시대의 대장장이

●●● '신철기시대' 라는 개념은 제철도시 포항이 첨단과학과 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새로운 60년의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그러한 시기에 개관하는 미술관은 산업과 과학이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미술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도록 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의 새로운 모델을 정제하고 연마하는 대장간이자 대장장이의 역할을 할 것이다 ●●●

### 제1전시 영희와 철수

'영희와 철수'는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며 우리나라 산업화시대를 몸으로 거쳐 온 기성세대를 상징한다. 포항시립미술관의 개관은 영희와 철수의 인간적이고 정신적이며 가치지향적인 삶의 회복을 상징하는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것이다.

미술을 통해 포항과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60년 역사를, 산업화·도시화의 명암과 사회상을, 그리고 거기에 갇들어 사는 소시민들의 삶과 애환 뿐 아니라 그들의 꿈과 현실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다.

### 제2전시 사이버네틱스-신철기시대의 대장장이

금속이 신개념의 소재로 새로이 태어나는 철의 시대를 '신철기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속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개념의 물질로서 인간의 문명에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의 미술형식과 미학적 논의를 넘어 신철기시대 미술을 지향함으로써, 미술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고 그러한 미술이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스며드는 새로운 차원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포항시립미술관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 제3전시 포항미술 2009

역사적으로나 미술인구와 저변 면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만한 자취를 가지지 못했던 포항이 이제 시립미술관의 개관과 더불어 미술관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포항미술 2009>전은 각기 다양하면서도 고유한 조형언어를 통해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미술의 오늘을 있게 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보여주는 전시다. 전시에는 원로, 중견작가는 물론,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청년작가와 외지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160여 작품이 포함된다. 3개의 전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제4전시 초현 장두건화백 특별전

서양미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 1918년 포항에서 태어난 장두건 화백은 사실적인 화풍에 기초하면서도 섬세한 표현과 독특한 시각을 통해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펼치며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의 역사와 함께 하는 오묘한 삶을 살아왔다.

포항시립미술관이 개관과 함께 이러한 선생의 작품으로 특별전을 열게 된 것은 지역 미술인과 시민에게는 우리지역 미술에 대한 자부심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제까지의 성과를 발굴,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미술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지역의 미술관이기 때문이다.



2

1 김무기 「중얼거리는 나무-오래된 집, 부분」 (제2전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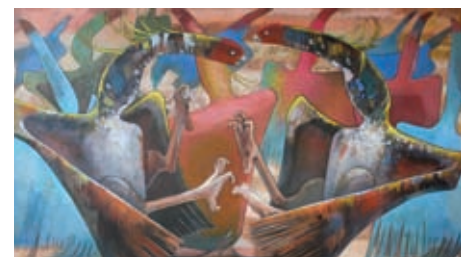
2 김정환 「타, 부분」 (제1전시작)

3 조희수 「판자촌, 부분」 (제3전시작)

4 장두건 「생은 즐거워, 부분」 (제4전시작)



3



4



### 읍면동 쌀소비운동본부 구성해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



포항시가 읍면동 단위의 '쌀 소비 운동본부'를 구성해 지역 쌀 소비 촉진운동을 본격 전개한다. 시는 11월 17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읍면동장 및 읍면동 개발자문위원장 6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읍면동 개발자문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읍면동장과 읍면동 개발자문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의 쌀 소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포항시의 올해 쌀 생산량은 4만2,549톤으로 전년 대비 7%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산지 벼 가격은 40kg 기준으로 4만2,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000원에서 9,000원까지 가

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과 읍면동을 대표하는 자생단체들이 쌀 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20일 시청에서 '포항시 쌀 소비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으며, 시청 구내식당에서는 쌀국수 급식, 각종 행사 시에는 막걸리와 동동주를 이용하는 등 쌀 소비 촉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해도동 주민센터, 포항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될 것



인포마(INFORMA)가 해도동 주민센터 건축설계 현상공모에 당선됐다. 해도동 주민센터는 총사업비 29억 원 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991㎡ 규모로 2010년 4월에 착공해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현상 공모는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TPP)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상공모 공고에서부터 작품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시 테라노바팀에서 전담했고, 전국에서 응모한 12개 작품을 대상으로 대학교수와 건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기존의 정형화된 건축물 디자인에서 벗어나 건물 외형을 획기적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포항시의 역점사업인 동빈내항 사업과 연계, 해양도시 포항의 이미지에 걸 맞는 배

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또 철강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살린 철강구조 건축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 설치, 친환경 자재사용 및 외부벽면 녹화패널 적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시공될 예정이다.

### 구룡포과메기,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핫 이슈로 떠올라'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9 서울국제식품산업전(Food Week)'에 구룡포 과메기 전문생산업체인 정원수산이 참가해 식자재 담당 바이어와 관람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일반인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여 전시물품까지 판매할 정도로 물량이 달려 현지에서 긴급 배송하기도 했다.

특히, 과메기의 영양학적인 우수성과 뛰어난 맛이 알려지면서 행사에 참여한 정원수산은 해외 바이어의 수출 상담이 이어졌으며, 국내 대형마트 납품 계약 등의 성과도 이뤘다.

정원수산 서양숙 대표는 "과메기의 품질과 위생,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해 보다 고품격 먹거리로 발전시켜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 포항 구룡포 과메기, 서울역으로 가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가 서울역사 내 중심 자리를 차지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는 12월 1일에서 내년 1월 6일까지 37일간 수도권 관문이자 다중이용시설인 서울역사 내에 동지를 들고,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의 입맛 잡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과메기 외에 범죤장아찌, 햇맞이빵, 포항불로주, 오징어 진미 등 지역 특산물 판매는 물론, 포항시 시청홍보와 관광안내도 겸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포항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관광객을 겨냥한 과메기 밥식해도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어 일본 관광객들을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번 특판 행사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역 이용객의 급감으로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첫날 매출액이 300만원에 달하는 등 구룡포 과메기의 저력을 톡톡히 보여줬다. 포항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대도시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과메기 홍보·시식 투어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 포항 구룡포 과메기의 전국적인 입지를 더욱 굳혀 나갈 방침이다.

### ▶▶▶ 내년예산 9.7% 늘어난 1조326억원 편성

포항시는 금년보다 9.73%(916억 원) 증가한 1조326억 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포항시의회에 제출, 당초예산 규모 첫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11.32% 증가한 8,549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2.72% 증가한 1,777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경기약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로 2010년 세수부족이 우려되지만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확보한 지방교부세(549억, 39.9%증가)와 국고보조금(523억, 22.5%증가)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당초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친서민 복지와 경기활성화, 역점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 ▶▶▶ 포항물회, 경북도청서 또 수랏상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또 포항물회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이 대통령은 12월 2일 경북도청 구내식당에서 지역 인사 150명과 가진 오찬에서 포항 별미횃집에서 마련한 물회 도시락을 맛있게 비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18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식에 참석한 뒤 만찬으로 도다리 물회를 먹으면서 한 그릇을 다

비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제공된 음식은 일반 메뉴와는 조금 다른 것이 특징. 우선 생선회와 야채를 따로 포장했고, 포항의 명물인 밥식해도 단풍콩잎을 반찬으로 넣어 이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한 것이 그렸다. 단풍콩잎을 본 이대통령은 이게 뭐냐고 물었고, 맛을 본 뒤에는 감회에 젖어 '아주 맛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포항물회 전문점 서울 오픈, 전국에 알린다



서울에 포항시가 지정하는 '포항물회' 전문점이 문을 열었다. 포항시 11월 28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해별관'을 포항물회 전문점으로 지정하고 오픈행사를 가졌다. 이날 국회의원을 비롯해 재경언론인, 향우회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포항물회 전문점 오픈 커팅을 비롯해 지정패 제막식, 지정서 수여 등과 함께 시식회 등의 홍보활동도 펼쳐졌다. 포항물회는 지난 2007년도 바다의 날 행사 시 물회도시락을 개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사참가자 3,000여명에게 공급해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 18일 포항 영일만항 개장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만찬에 포항물회가 올라 '수랏상에 오른 포항물회'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 ▶▶▶ 내년 4월, '닛뽀마루' 크루즈선 포항 온다



일본 후쿠야마를 출발하는 크루즈선 '닛뽀마루(日本丸)'가 내년 4월 2일 포항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12월 3일 닛뽀마루호 사전답사팀 7명이 1박2일 일정으로 포항을 방문해 포항공대 일대와 대성

사, 구룡포 일본인거리 등을 답사하고, 닛뽀마루호가 입항할 포항항과 그 주변거리 등을 살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포항에 입항했던 '후지마루(ふじ丸)'호에 이어 두 번째 닛뽀마루 입항에 따라, 이를 대규모 일본 관광단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보고, 관광편의시설과 국제적인 해양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다른 크루즈선의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 줌마렐라 1만명 내년에 포항 관광온다

내년에 1만 명의 아줌마들이 '줌마렐라(아줌마+신데렐라) 관광열차'를 타고 포항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와 한국관광클럽은 11월 28일 필로스호텔에서 줌마렐라 관광열차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클럽은 내년 1월부터 매월 1회 서울~포항 간 줌마렐라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한편,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연간 1만 명의 국내 관광객을 포항에 유치한다. 줌마렐라 열차는 무궁화호 특실 7량과 이벤트 객차 1량 등 8량으로 운행되며, 운행 중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 ▶▶▶ '스틸러스 웨이' 포항시정에 접목한다



포항스틸러스를 아시아 정상으로 이끈 '스틸러스 웨이'가 포항시정에 접목된다. 포항시는 12월 9일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좌에 포항스틸러스 김태만 사장을 초청, '스틸러스 웨이의 성공'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이날 강의에는 읍면동장과 사업소, 시청 과장 이상 등 모두 110여명이 참석했다. 포항시는 아시아 정상으로 이끈 '스틸러스 웨이'를 '그린 웨이' 시정으로 승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강좌를 열었다.

### ▶▶▶ 실개천거리, 새해 희망의 빛을 밝힌다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에 '2009 희망의 빛 축제'가 열려 새해 희망의 빛을 밝힌다.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한 달 간 실개천거리에 30여개 루미나리에의 각종 빛 조형물이 매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화려한 밤을 수놓는다. 중앙상가상인회와 포항 YMCA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고 포항의 중심상권인 중앙상가를 빛과 실개천이 흐르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마련됐다.

### ▶▶▶ 대보면과 한반도면 자매결연 맺어

포항시 남구 대보면(면장 권영철)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면장 방재성)이 12월 3일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자매결연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대보면 개발자문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원 등 60여명과 한반도면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생단체대표,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 ▶▶▶ 포항시 몽골과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나서



몽골의 도지사 15명이 12월 9일 포항에 왔다. 다르자 남자브 차관을 단장으로 아르항가이 아이막(우리나라의 도)의 트렘바야르 제덴담바 도지사 등 모두 15명의 방문단이 9·10일 이틀간 일정으로 포항을 방문했다. 당초 몽골 전역의 21개 아이막 도지사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폭설 때문에 6명의 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이들에게 포항의 첨단과학 인프라, 영일만항, 세계적인 철강산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산업인프라 등을 알렸다. 시는 앞으로 몽골에 새마을운동 마케팅을 벌이는 한편, 최근 몽골 산업인력이 포항에 상당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한동대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몽골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교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준공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가 준공되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자립기반 조성에 나선다. 포항바이오파크는 국·도비 등 30여억 원을 투입, 연면적 1,115㎡ 규모(지하 1층, 지상3층)로 작업실과 연구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포항바이오파크는 앞으로 자체 개발한 티백차, 기능성쌀, 쿠키 등을 주로 생산하게 되며, 일부 제품은 이미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과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 지역 중증장애인 10여명을 채용한 이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준공식은 내년 3월에 가질 예정이다.

### ▶▶▶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의 펼쳐



포항시의회는 12월 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까지 2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3일 본회의에서는 박승호 포항시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연설을 들었고, 이어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린 의원, 부위원장에 안정화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4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1조 326억 원의 2010년도 예산안과 기정예산 1조 1,227억 원보다 301억 원이 증액된 1조 1,528억 원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 예산편성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10 11일 양일간은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올 한해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정 질문을 펼쳤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 12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랐던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 등 11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김성조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도 함께 처리한다.

### ▶▶▶ 전문가 초청, 예산심사기법 익혀



포항시의회 2009년 하반기 의원연수가 11월 25일 의원세미나에서 실시됐다.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이번 연수는 12

월 3일부터 개최되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한 예산안 심사기법 등에 대한 연찬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포항시 현안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원 역량 강화는 물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강에 초빙된 국립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지방예산의 이해와 사업별 예산 심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예산의 의미, 지방자치 10년과 지방재정의 변화, 지방재정 구조의 이해,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예산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강의를 펼쳤다.

이상구 부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재정정책을 써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펼칠 12월 제2차 정례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예산심사에 들어갈 의회의 역할과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 ▶▶▶ 실용행정 위해 현장행정 확대해 나갈 것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제161회 정례회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포항시립미술관 등 3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특히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무경제위원들은 호미곶 새천년기념관과 내년 1월 착공예정인 남구 대도동 뱃머리마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이어 130여억 원을 투입하여 3년간 공사 끝에 12월 22일 개관하는 환호공원 내에 위치한 포항시립미술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구 위원장은 "밀도와 속도 있는 실용 행정을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현장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현장에서 바로 바로 대책을 마련하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의 밝은 미래 -  
**포항시의회가 열여깁니다!**

www.council.ipohang.org



### 제4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 공모기간 : 2009년 11월 12일 ~ 12월 28일 (48일간)
- 공모부문 : 5개 부문(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포어)
-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자격제한 없음)
- 공모내용  
「영일만 르네상스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포항」의 상징적 이미지 내포 / 웅도 경북 300만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과 단결을 표현 할 수 있는 내용 /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역동성을 함축한 내용 / Powerful Pohang 및 연오랑 세오녀(해와 달)의 신화가 있는 빛의 도시 이미지 내포 / 포항 호미(호랑이 꼬리)꽃의 상징성 및 호랑이의 늠름한 기상을 대외적으로 표현
- 당선작 시상금 : 일금 12,000,000원 (일금 일천이백만원 정)
- 응모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포항시 체육지원과 체전준비 T/F팀 270-2796, 5633)
- 기타사항 :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공지사항 등

### 12월 포항시민교양대학

- 일 시 : 2009년 12월 23일(수) 오후2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강 사 : 문혜원 (노래강사)
  - 주 제 : “문혜원의 신나는 노래교실”
  - 대 상 : 포항시민 누구나 (무료)
- [문의 : 포항MBC(289-0122), 시 평생학과 (270-2871)]  
\*10분 전까지 입장바랍니다.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구청(세무과) 또는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납구청 세무과(☎270-6241), 북구청 세무과(☎240-7241)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해 우송해준다.
- 납 세 자 :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 최종소유자
  - 납부기간 : 2009년 12월 16일 ~ 31일
  -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및 최고 72%의 증가산금 추가
  - 납부장소 : 포항시내 모든 금융기관, 전국 농협, 우체국
  - 폰뱅킹,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로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현대, 삼성, 비씨)
    - 방 문 납 부 : 구청 대구은행 창구(현대, 삼성카드)
    - 인터넷납부 : 3개 카드사 해당 홈페이지 접속 납부 (또는 한 글로 “위택스”)

### 반려동물 무료입양, 행복한 가정 만드세요!

- 분양대상동물(2009년 12월부터 선착순) : 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기간이 지난 주인 없는 개, 고양이 200두
- 분 양 처 : 포항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한국동물테마파크」,

-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67-2 (☎262-8295)
- 분양조건 :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반), 입양 후 사후관리 확인 등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
    - \* 상업적 목적, 동물보호법 위반자 제외
  - 입양방법 : 직접 방문하여 입양신청서, 서약서 작성 후 분양(신분증 지참, 분양 시 사진촬영)
- [문의 : 농축산과 축산위생담당 전화 (270-2724)]

### 두드리세요! 행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시원하게, 부패행위는 깨끗하게, 위법·부당한 행정청분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고충민원 110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부패신고 1398

### 12월부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등 보험적용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하여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보험적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 9,000원 정도이며,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암환자가 병 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

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7411)]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열람권자의 제한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02-2023-8853~8857)]

### 활동량은 늘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적게

보건복지가족부는 비만예방사업으로 올바른 식생활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영양 부족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과 신체활동 감소로 발생하는 비만 저체중과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스스로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임신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임신·수유부를 위한 식생활지침
  - 우유 제품을 매일 3회 이상 먹자
  -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을 매일 먹자
  - 청결한 음식을 알맞은 양으로 먹자
  -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말자
  - 활발한 신체활동을 유지하자
- 영유아를 위한 식생활지침
  - 생후 6개월까지는 반드시 모유를 먹이자
  - 이유 보충식은 성장단계에 맞추어 먹이자
  - 유아의 성장과 식욕에 따라 알맞게 먹이자
  - 곡류, 과일, 채소, 생선, 고기,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먹이자
-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지침
  - 음식은 다양하게 골고루
  - 많이 움직이고, 적은양은 알맞게
  - 식사는 제때에, 싱겁게
  - 간식은 안전하고, 슬기롭게
  -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바르게
-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침
  -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자
  - 건강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먹자
  - 물이 아닌 음료를 적게 마시자
  -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지 말자
  -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하자

- 성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 청결한 음식을 알맞게 먹자
    -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을 적게 먹자
    - 술을 마실 때는 그 양을 제한하자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02-2023-7753)]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한다. 경찰은 포항시민들이게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안내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 처리하는 민원서비스 방식이다. 일괄서비스 대상 15종은 한국인의 생애주기(출생~사망)에서 도출한 26개 생활단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일반국민, 공무원,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등)과 정보화 현황분석을 거쳐 선정된다.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총 401개의 개별 민원과 52개 기관, 41개 시스템이 연계되어 구성된다.

- 일괄서비스 대상 및 개시일정
- 온라인 민원서비스 소개 및 사용 안내
  - 전자민원G4C URL([www.egov.go.kr](http://www.egov.go.kr)) 노출
  - 이용량 많고, 생활에 밀접한 민원 중심으로 소개

2009. 12월말	2종(이사, 사망민원 일괄서비스) 우선 서비스 3종(장애인, 보훈, 개명) 구축·시범운영
2010. 1월말	3종(장애인, 보훈, 개명) 서비스 개시
2010. 7월	5종(출생, 교육, 취업, 고용안정(실업), 산재보험) 개통
2010. 12월	5종(자동차, 혼인, 소자본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개통

### 2009년 연말연시 특별 방법활동 전개

포항남 북부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 및 최근의 경제 불황 등으로 강 절도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1일간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및 아파트 빌라 등 범죄취약개소에 대한 선제적 가시적 방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연말연시 평온한 민생치안 확보에 전력할 기출일 방침이다.



##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나세요!



포항시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회장 오주택) 회원 86명은 11월 24일 동지여고생 10명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코모도호텔에서 '이웃에게 사랑이란' 주제로 사랑의 연탄나누기 기금마련 일일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5세대에 연탄 7,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송도동 저소득계층 2세대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손수 전달했고, 나머지 세대는 업체에서 일괄 배달했다.

특히 동지여고생 10명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솔선수범 나서 연탄배달 자원봉사 활동에 참석해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 ▶▶▶ 사랑의 열매달고 사랑의 온도계 높여주세요!

포항시는 12월 1일 시청 앞 광장에서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2개월간의 이웃돕기 성금모금 출발을 알렸다. 200여 시민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희망의 메시지 선포에 이어 행복주주 증서 전달,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관·시설에 지원된 사랑의 열매 차량 10여대가 시내를 돌며 시민들의 동참을 홍보했다.

한편, 포항시는 18억 원을 목표로 성금모금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금기탁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KBS방송국, MBC문화방송, 포항CBS,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 사랑나누기 동참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회장 이정식)은 12월 7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550만원 상당의 물품(쌀 10kg들이100포, 연탄2,000장, 김장김치200포기)을 연일읍읍장 최상수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생필품은 지난 11월 25일 개최한 일일호프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과 회비로 구입했으며, 연일읍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전달된다.

### ▶▶▶ 300억 장학기금 꾸준히 답지

포항시 장학기금 조성에 동참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26일 애인복지재단(이사장 이대공)이 1억 원을, 12월 8일에는 (주)삼화P&C(대표 손경호·김정희)가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포항시장학회에 기탁했다. 같은 날 사립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명희)에서 500만원, 포항명도학교(교장 장병운)에서 330만원, 포항시 정수과 이삼돌 씨가 5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이에 장학회는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고, 앞으로도 장학기금조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랑의 김치만들기



포항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꾸미루미)는 12월 5일 사랑의 김치김치를 만들어 구룡포 석병2리 석병양로원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사랑의 김치만들기에 참가한 40여명의 학생들은 모두 자신들이 만든 김치가 양로원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에 나눔과 봉사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구룡포, 동해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문화생활지원, 급식제공 등 다양한 방과 후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포항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 300만원 기부

포항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회장 김상수)는 12월 8일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포항시 푸드마켓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포항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는 포항지역의 서로 다른 업종의 대표 52명이 모여 기업과 기업 간의 기술융화사업, 기술멘토링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쓰기 위해 결성됐으며, 독거노인 주택복구 사업, 포항시장학급 전달 등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제목 | 꿩(외로움) | 크기 | 66.1 X 50.0 cm | 재료 | 종이위에 파스텔



권종민 Kwon Jong Min

대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등 대학원 졸업(논문: 렘브란트의 빛에 관한 연구) / 공모전·단체전 다수 / 개인전 1회 봉성갤러리(대구2005) / 영남구상의 진수전(08. 09) / 선린대학 플리워드디자인과 강사역임 / 예맥회 회원. 포항 구상회원 / 포항 미협사무국장 / 롯데백화점 문화교실 출강

### 삶의 감정도감

주름살은 한 개인이 지나온 삶의 감정도감이다. 주름살을 지우는 것은 마치 추억의 자취를 지우는 것과 같다. 얼굴의 주름살로 보아 초로인 한 남자가 먼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권종민의 이 작품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인물의 현재의 심리를 잘 나타낸다. 참된 초상은 외형만 닮은 인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형태는 물론이려니와 보이지 않는 인물의 내면까지도 생생하게 담아내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벼랑 끝에 매달린 낙랑장송의 비틀어진 자태가 오히려 외경의 아름다움을 말해 주듯, 인물의 지나온 연륜과 처지를 진솔하게 담아낸 권종민의 초상은 그래서 더욱 따뜻하고 훈훈하게 우리에게 다가서는지도 모른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